

‘차이나런’ 끝났나... 차익실현 나선 外人, 하루 1620억 매도

14~18일 외인 3852억 순매도
21일 하루에만 1620억 팔아
韓 수출 악화 등 원화 약세 자극
모멘텀 부족... 매도 지속 전망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4.98포인트(1.02%) 하락한 2,419.50으로 장을 마친 21일 서울 증권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지난달부터 순매수세를 이어가며 국내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던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시 국내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다. 외국인들은 지난달부터 이달 11일까지 국내 주식을 5조9802억원어치 사들이며 증시 상승을 견인했으나 이후 매도세로 돌아선 분위기이다.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지난달 3연임을 확정짓자 미·중 대탕트 기대감이 부상하면서 ‘차이나런(글로벌투자자금의 중국 이탈현상)’자금의 국내 유입이 주춤하는데다 우리 증시 대표주들의 저평가 매력도 저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2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국내 주식을 3852억원어치 순매도했다. 특히 외국인들은 삼성SDI(1514억원), 기아(1043억원), 네이버(951억원) 등을 팔아치웠다. 21일에도 외국인은유가증권시장에서 1620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일 대비 1.02% 떨어진 2419.50에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의 매도세는 지난 1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뤄진 것과 주가 상승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 출회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운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주

초반까지의 급반등세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숏커버징 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를 끌어 올렸으나 지수 자체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지금 경로나 실적 측면에서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악화하는 국면이다”며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부족하다 보니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세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한국의 수출 악화 등이 원화의 추가적인 약세를 자극하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그동안 빠르게 유입됐던 외국인의 수급이 이어질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어 이같은 매도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염동찬 삼성증권 연구원은 “아시아

지역 중 한국으로의 외국인 자금 유입이 특히 강했다는 점에서 외국인 수급 강도가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확신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펀드 자금 흐름의 바로미터 역할을 하는 록셈부르크 자금 역시 국내 주식을 매수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는 외국인 수급이 둔화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전문가들은 24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순매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차이나런 대체 수요, 밸류에이션 매력뿐만 아니라 원·달러 환율 하락도 작용했기에, 금통위 이후 환율 변화가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축구엔 치맥... 주류 등 월드컵 수혜주 관심

제주맥주, 한 달 새 45% 급등
교촌 등 치킨 관련주들도 강세

21일 막을 올린 2022 카타르 월드컵과 함께 국내 ‘치맥(치킨+맥주)’ 관련 유통업체들이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주가가 크게 오르고 있다. 우리나라 경기 시간이 오후 10시에 잡히면서 월드컵 기간 동안 특수를 누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주류업체 제주맥주는 전 거래일보다 19.89% 급등한 2170원에 거래를 마쳤다. 제주맥주 주가는 지난달 21일까지만 하더라도 1495원에 머물렀지만, 한 달 새 45.15% 급등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맞는 월드컵 시즌에 ‘치맥’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통상적으로 월드컵 기간동안 치맥 대목으로 꼽히며

관련 소비가 늘어나 매출 증가로 이어져, 관련 종목은 호재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대표팀의 경기가 한국시간으로 오는 24일 오후 10시 우루과와의 첫 경기를 포함해 가나전(28일 오후 10시), 포르투갈전(12월3일 자정) 등 늦은 밤에 열리는 만큼 야식 관련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맥주 외에도 주류 관련 종목들도 최근 오름세가 이어졌다. 하이틴진로는 이날 150원(0.56%) 오른 2만6800원, 롯데칠성음은 1500원(1.08%) 오른 14만원에 장을 마쳤다. 이들 종목도 최근 최근 한 달새 각각 9.61%, 6.87% 올랐다.

치킨 관련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교촌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경우 최근 한 달 동안 30% 가까이 급등했다. 지난달 21일 9890원에 거래를 마쳤던 교촌에프앤비

는 이날 1만2850원까지 오르면서, 29.93% 오르면서 장을 마쳤다. 교촌에프앤비는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매출액 1252억원(전년 동기 대비 -4.2%), 영업이익 31억원(-79.7%)에 그치면서 실적이 크게 추락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4분기 중에는 월드컵 등의 성수기 영향으로 실적 회복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프랜차이즈 사업은 월드컵 등 연말 성수기 진입으로 견고한 수요가 예상되며, 인플레이션 장기화 속에서 원가 및 판매비 리스크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영석 기자 ysl@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블루칩’ 51개社 편입 코스닥 글로벌 출범

셀트리온헬스케어·카카오게임 등 해당 섹터 시총 1위 기업들 선정

한국거래소가 코스닥 시장의 블루칩 기업 51개사를 ‘코스닥 글로벌’ 편입기업으로 확정했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는 셀트리온헬스케어,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등 다양한 산업군의 대표 코스닥 종목들이 선정됐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코스닥 글로벌 출범 기념식을 진행했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열린 기념식에서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인정받은 편입기업에게 축하말씀을 전한다”라며 “연계상품개발, 해외 IR 등 적극적 지원을 통해 코스닥 글로벌 편입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에는 반도체, 서비스·컨텐츠, 제약·바이오, 제조업 등 코스닥 대표 산업군을 고르게 반영했다. 코스닥 내 전체 시총 1위 기업



코스닥 글로벌 세그먼트 출범식에서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념사를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인 셀트리온헬스케어를 비롯해 에코프로비엠, 카카오게임즈, 리노공업 등 해당 섹터에서 시총 1위 기업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반도체 섹터(15개사) 서울반도체·원익IPS·티씨케이 ▲서비스·컨텐츠(14개사) 펠어비스, CJ ENM, JYP ▲의료·바이오(11개사) 알테오젠, 에스티팜, 휴젤 ▲제조업(11개사) 엘앤에프, 천보 등이 포함됐다.

/이영석 기자

‘고금리 시대’ 중도금 무이자 혜택 수익형 부동산 주목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 2차 분양
제주 르컬렉티브 까사마리나 등 공급

최근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주는 수익형부동산 분양이 이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도금은 분양가의 50~60% 수준으로 책정된다. ‘중도금 무이자’를 이용한다면 잔금 납부 전까지 중도금에 대해 별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걱정과 금융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셈이다. 중도금 무이자 준공 전, 금융비용이 부담되는 수요자를 유인하기 위한 포석이다.

이런 상품으로 롯데건설은 울산광역시 북구 산하동 일원에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63~259㎡696실 규모로 롯데리조트 내에 들어선다. 최근 1차 분양을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

마감하고, 2차 분양에 돌입한 상태. 이번 2차 분양 대상은 전용면적 63~92㎡ 341실로 전용면적별로는 ▲63㎡ A 163실 ▲63㎡B 7실 ▲92㎡A 95실 ▲92㎡B 76실이다. ‘울산 롯데캐슬 블루마리나’는 전 호실에서 동해바다 ‘오션뷰’ 조망이 가능하다. 2차 물량 중에는 호실에 따라 도심 조망도 가능하다.

/이규성 기자 peace@

2차전지 사업 다각화, 추가 수주도 긍정적

株라쿨라의 중목
오션브릿지

리서치알유은 반도체 공정용 화학재료업체인 ‘오션브릿지’의 내년 실적에 대해 반도체 부문에서 매출이 다소 줄어도 2차전지에서 감소분을 상쇄하며 매출액 경신기록을 이어갈 것으로 21일 전망했다.

오션브릿지는 FAB(반도체 생산공장) 설비 장비 생산 및 반도체 제조 공정용 화학제품을 생산, 공급해왔다. 올 3분기 영업실적은 매출액 538억원, 영업이익 103억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28.9%, 243% 증가했다. 특히 반도체 소재 부문에서 환율효과와 추가 수주가 반영되면서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

다만 오션브릿지의 주 고객사인 SK하이닉스가 내년 시설투자액을 전년 대비 절반 가량 축소한다고 발표하면서 매출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반도체 사업에서 벗어나 2차전지 장비 사업으로 사업다각화에 성공하면서 향후 매출은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달 입찰 진행 중인 SK은 미국공장 프로젝트 CEE 장비 2건(건당 170억원 규모), 자회사 YHT의 풀딩장비 1건(건당 400억원) 수주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외에도 SK은의 5건 입찰 계획이 남아있는 만큼 추가 수주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오는 2023년 영업실적으로 매출액 1864억원(8.4%), 332억원(12.6%)을 내다봤다.

/이영석 기자